

짜장봉사, 기업과 함께 나눈다

“세계적인 기업 성장에 일조”

군산대-태평양, 기술개발협약 체결... 1000만원 상당 현물 기탁

군산시 소룡동, 11년간 이어온 주민 봉사... 기업참여형 축제로 확대 후원·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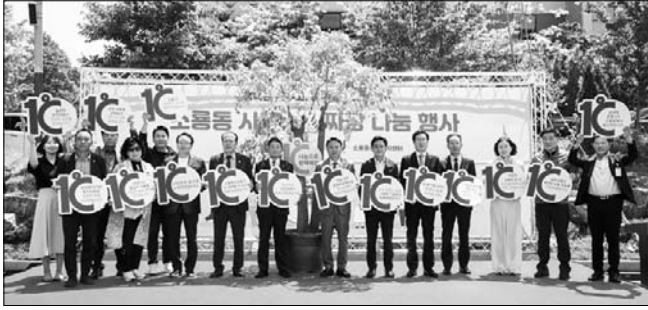
군산시 소룡동이 코로나19 엔데믹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11년간 이어온 짜장나눔 봉사를 기업참여형 축제로 확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소룡동에 따르면 이날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앞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기업인 관내 어르신 등 450여명과 함께 '동행기업과 함께하는 사랑애 짜장나눔행사'를 치르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업나눔문화를 형성했다.

이번 나눔봉사는 소룡동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봉사협의회 등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고, 풍년연희단 설장구·흥이오 예술단 등 문화예술행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대 공연 주민 노래자랑 등이 어우러져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식행사로 진행된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 소룡' 2호 동행기업 SGC에너지가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소룡'C' 소원나무 퍼포먼스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신영대 국회의원·김영일 군산시장 등 정계, 종교계, 소룡1도씨 동행기업, 착한가게, 주민대표 등이 한데 모여 소룡동을 위한 약속과 다짐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산업단지 중심지에 위치한 소룡동은



군산시 소룡동이 코로나19 엔데믹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11년간 이어온 짜장나눔 봉사를 기업참여형 축제로 확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23년에 들어 관내 기업과 정기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 아주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주민상생 프로젝트 소룡'을 추진 중에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룡동 주민들이 11년간 이어온 짜장나눔봉사가 이제는 기업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산업단지 중심지 소룡동에서 기업 나눔문화 확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길훈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오늘 함께해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과 어르신들, 행사에 후원(100만원)을 해주신 OCI 군산공장 그리고 2호협약에 함께해주신 SGC 에너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소룡'C' 2호 동행기업 협약에 참석한 SGC에너지 표영희 부사장은 "오늘 의미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보다 가치있고 실질적인 기부를 나눌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이장호(취태평양(회장 최선호)은 5월 9일 군산대 본부 4층 제1소회의실에서 부력제 제조 기술을 활용한 소파제 제품 개발과 제품 신뢰성 테스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 분야는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와 협력, 소파제 개발을 위한 신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기자재 사용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제품개발에 따른 특허, 인증 및 기술사용 등 양 기관의 상호이익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고석인 대외협력본부장 정한구 조선힘양공학과장, 서대원 조선힘양공학과 교수와 (취태평양 최선호 회장, 안기정 본부장, 유선우 태양광사업부 대표, 정동은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취태평양은 일천만원 상당의 차선 규제봉(오투기 ET 규제봉)을 현물로 기탁했다.

이날 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연구인력 등 노하우를 활용해 소파제 제품 개발에 좋은 결실을 이뤄 대학 발전과 (취태평양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천만원 상당의 현물 기탁에도 감사를 표했다.

최선호 회장은 "군산대와 함께 개발하게 될 소파제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 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취태평양은 2006년 설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수·육상 태양광 기자재 및 차량방호책 가드레일·도로표지판·방음벽·차량판 등 도로시설물의 개발 및 생산 전문업체이다.

/군산=이재훈기자

군산시 정책리더, 아침窓으로 시정 혁신 이끌어

한 달 한번 간부 공무원·시의원 참여 현안 특강·토론장 마련

군산시가 시정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시 정책 리더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각을 깨우는 아침窓'을 개강했다.

'생각을 깨우는 아침窓, 군산 혁신 아카데미'는 2023년 신규 시책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를 이끌어가는 정책 리

더들에게 최신 트렌드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 특강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4일 에이본 컨벤션에서 처음 실시된 특강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승욱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위원회 부위원장이 초청돼 수도권 청

년 인구 블랙홀 및 인구 감소 시대 '인구활력, 지방소멸 그리고 군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국가적 정책 방향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도시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7회차에 걸쳐 갈등관리, 로컬 브랜딩, 시와 행정혁신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분야별 저명인사의 특강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눈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토론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지역을 이끌어가는 정책 리더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혁신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박물관 배경 '도시가 보석, 익산' 소개

익산시가 국립익산박물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익산 소식을 전달하는 매거진 '뮤지엄 오피스 w2 - 도시가 보석, 익산'을 소개했다.

매거진 '뮤지엄 오피스'는 박물관은 딱딱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가볍고 친근한 마음으로 박물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신선한 시각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는 잡지이다.

이번 호는 두 번째 발간으로 국립박물관 중 가장 최근에 개관, 개관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수 100만을 돌파한 국립익산박물관을 세심하게 담았다.

특히 국립익산박물관을 중심으로 무왕과 무왕비가 잠들어있는 쌍릉의 비

밀, 지난해 개관한 국립익산어린이박물관, 최근의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국보 지정,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한 이야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신선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옛 서울역사, 청와대 영빈관, 여의도 국회의사당, 천안 독립기념관을 지은 익산의 석재문화,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4대 종교 성지, 하모니카처럼 즐거운 인생이 있는 80년 전통의 '하태향', 50년간 배일에 싸여 있던 아가페 정양원의 신비로운 풍경 등 익산의 역동성을 흥미롭게 표현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 배산체육공원, 생태놀이터·가족휴식공간 조성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이 어린이 중심의 가족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산체육공원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자연친화적 생태 놀이터가 더해져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여가 기능이 강화된 특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배산체육공원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놀이터가 본격 운영된다.

시는 총 사업비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여㎡ 규모의 생태놀이터를 만들고,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완료했다.

그동안 꽃사슴과 진돗개 배설물로 인한 악취로 시민 불편이 발생했던 생태학습장과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활용해 짚라인, 그물망건너기 등 16개 놀이시설이 갖춰진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생태놀이터로 조성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8기 참여예산 시민위 위촉식 개최

군산시는 9일 '제8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나윤만(구암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촉된 54명의 참여예산 시민위원은 공개모집, 읍면동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4월까지 총 2년간이다.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경제해양, 문화체육관광, 복지환경, 건설교통, 농정상하수 총 6개로 나눠 운영하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군산시 보건소, 청소년 흡연 예방 영상 공모전 개최

군산시 보건소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을 맞아 '청소년 흡연 예방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군산시 거주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금연 환경 조성 관련 영상 제작을 주제로 실시한다.

출품 영상은 3분 내외의 분량으로 다매체터러, 인터뷰, 드라마 등 모든 장르가 가능하지만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희망 참가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제출서류 및 영상을 전자우편(tkek508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2명(7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 입선 5명(20만원) 총 11명을 선정해 군산사랑상품권과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6월 중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다양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